

민주당 정권의 지지기반 [노동조합]

2009년 8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308의석을 획득하여 정권을 교체하였다.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417명이고 이 중 54명이 노동조합 출신 의원이다. 일본 정치계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.

□ 다수의 노조 출신 장관들

- 하토야마 내각의 구성원 18명 중 노동조합 출신 장관은 6명으로 30%를 차지, 특히 이들은 국회(중의원)의장, 관방장관, 예산심사 등의 국가 요직을 맡고 있으므로 강력한 권력을 행사
 - * 국가공안위원회 납치문제담당상 나카이 오사무: JP노조(우정노조)
 - * 관방장관 히라노 히로후미: 전기연합(마츠시타노조)
 - * 문부과학성 가와바타 다츠오: U젠센동맹(섬유화학식품 유통서비스노조)
 - * 농림수산업성 아카마츠 히로타카: 운수노동연합, JP노조
 - * 경제산업성 나오시마 마사유키: 자동차총연(도요타노조)
 - * 행정쇄신담당상 센고쿠 요시히토: 지역공공연합(자치노조)
 - * 환경성: 오자와 사키히토: JP노조(우정노조)
- 이 배경에는 민주당 정권의 최대 지지기반으로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(이하 연합)가 존재하기 때문임
 - * 연합에는 자치노조, 일교조(일본교직원조합), 정보노연, 전력총연, 자동차총연 등 산업별로 노동조합들이 소속

□ 연합에서 각종 지원을 받는 민주당 정권

○ 선거득표

* 연합에서 모이는 득표수는 2007년 7월, 참의원선거에서 183만표로 집계되었으며 자민당의 후원회 조직처럼 사람을 관리할 필요없이 노조 조합원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음

○ 자금

* 정치자금보고서(2006-2008)에 따르면 주된 노조들은 요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음

| 의원명 | 구분 | 노동조합명 | 자금액 |
|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후루모토 신이치로 | 중의원 | 도요타 정치에 참여하는 모임 | 1억3,500만엔 |
| 나오시마 마사유키 | 참의원 | 도요타 정치에 참여하는 모임 | 1억1,000만엔 |
| 히라노 히로후미 | 중의원 | 마츠시타전기산업 노동조합 정치활동위원회 | 9,700만엔 |
| 미카즈키 다이조 | 중의원 | JR 미카즈키의 모임 | 7,645만엔 |
| 이케구치 슈지 | 참의원 | 도요타 정치에 참여하는 모임 등 | 4,960만엔 |
| 후지와라 쇼지 | 참의원 | 전력총연 정치활동위원회 등 | 4,000만엔 |
| 도도로키 도시하루 | 참의원 | 기간노동연합 정치활동위원회 | 1,000만엔 |
| 츠다 미타로 | 참의원 | JAM 정치연맹 | 540만엔 |
| 에다노 유키오 | 중의원 | 어필21 (NTT 노조) | 410만엔 |
| 센고쿠 요시히토 | 중의원 | 어필21 | 400만엔 |
| 가와바타 다츠오 | 중의원 | 기간노동연합 조선중기계부문 의원을 지원하는 모임 | 300만엔 |
| 아즈미 준 | 중의원 | 어필21 | 200만엔 |
| 나가시마 아키히사 | 중의원 | 어필21 | 100만엔 |
| 아카마츠 히로타카 | 중의원 | 어필21 | 86만엔 |

<참고 문헌>

주간 다이아몬드 (2009.12.05)